



제주 주택미분양 이미 3년 전부터 조짐

2016년 4월부터 적체현상... 24개월째 1000호 이상 10월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도 60으로 전국 꼴찌

제주지역 주택미분양시장의 미분양 사태가 3년 전부터 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4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줄곧 1000호 이상을 기록하며 해소방안이 요구된다.

20일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23호(제주시 479·서귀포시 744)에 이른다. 특히 최근 서귀포시가 사상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되면서 적체현상이 뚜렷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4월부터 제

주시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당시 미분양주택은 제주시 138호, 서귀포시 20호로 이를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때부터 미분양 적체현상이 현실화됐다. 다만 서귀포시의 경우는 같은해 3월 미분양 물량이 단 한 채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정부가 2015년 11월 성산읍지역에 제2공장을 건설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시점과 연장선상에 있어 호기가 이어졌다.

반면 제주시권 미분양주택은 크게 늘며 불과 1년 만에 786호로 몸집을

불렀다. 서귀포시권도 이 기간에 128호로 증가하며 적체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월별 최고기록을 보면 각각 제주시는 지난해 3월 1012호, 서귀포시는 올해 8월 744호다. 도 전체 최고점은 지난해 3월 1339호(제주시 1012·서귀포시 327)였다.

제주지역에서 미분양주택 1000호 이상을 기록한 시작점은 2017년 9월이며 현재까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물량은 1021호(제주시 747·서귀포 274)다. 이후 지난해 말부터 제주시권은 점차 미분양 물량이 줄고 있으나 서귀포시권은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서귀포시의 미분양 물량이 645호로 제주시의 516호를 앞질렀다.

한편 지난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 따르면 제주도의 주택공급자 위주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치인 HSSI 전망치는 60.0(전국평균 78.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지난 9월의 55.5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100)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달 분양경기실사지수 실적은 64.0(전국평균 77.3)로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충북(55.5)과 충남(60.0)보다는 형편이 나았다. 백금탁기자

청정제주 화장품 중앙아시아 간다

비케이수 현지서 판로개척 JTP 시장진출 가속화 나서

중앙아시아가 제주의 새로운 화장품 산업 수출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판로개척에 나선 제주기업이 잇따라 계약체결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는 '2019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글로벌공동사업'을 통해 우수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성공한 제주기업과 함께 지난 9월 24일과 26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우수기술제품의 해외바이어 매칭 상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앙아시아가 제주화장품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

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제주의 대표적인 마유기업 비케이수(BKSU)는 카자흐스탄 6개 기업과 상담을 가졌고, 이 가운데 3개 기업과 모두 2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상담회에서는 4건의 현지 바이어 매칭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 향후 수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약속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제주 마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만큼 기술과 청정 제주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을 바탕으로 제주산 화장품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보다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비행하는 워킹맘들의 힐링 시간” 제주항공은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2-6세 자녀를 둔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성코칭, 멘토-멘티 등을 진행하는 ‘비행맘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도관광협회장 보궐선거 내달 7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11월 7일 치러진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내달 7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후보자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28일까지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도 관광협회에 방문해 입후보신청서와 이력서, 주민등록초·등본, 회원 50명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자기소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광협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대의원은 당연직을 포함해 18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는 김영진 전 회장이 내

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지난달 30일 임기를 남겨두고 중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될 보궐선거에서 뽑힌 차기 회장은 김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1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당첨번호	4. 18. 20. 26. 27. 32
182 등 보너스숫자	9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농협 편의점 제주지역 개장에 도소상공인연합회 “출점 반대”

농협의 편의점 마트인 ‘하나로미니’ 제주지역 1호점 개장 관련,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월농협은 최근 기존의 애월하나로마트를 ‘애월농협하나로 미니마트’로 도내 1호점을 개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우려의 뜻을 밝히며 “농협의 소매 유통 출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월농협에 이어 구좌농협과 성산포농협이 2·3호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들과 공동으로 하나로미니 출점을 반대하며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월농협의 한 조합원은 “하나로미니 개장은 연초 간담회에서 봉성리와 어음 1·2리 조합원들이 제안으로 만든 것으로, 실제 적자 운영 중인 기존의 마트를 리뉴얼하고 상품을 다변화해서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편의점 형태의 마트를 개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제주(10월 21일~27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사명	대표	창립일
제주은행 서광로지점	송명권	1988년 10월 21일
노형새마을금고	김영돈	1978년 10월 23일
한라신협 연복로지점	조성길	2009년 10월 23일
특산에버그린(주)	김찬식	1982년 10월 24일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전문적 자산관리로 고객감동 실현”



▶ 제주은행 서광로지점=21일 개점 31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서광로지점(지점장 송명권·사진)은 제주시의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장학사업 및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송명권 지점장은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선보여 고품격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발로 뛰는 마케팅 경영과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752-7201.

“서민 금융기관 역할에 최선을”



▶ 노형새마을금고=23일 창립 41주년을 맞는 노형새마을금고(이사장 김영돈·사진)는 오는 27일 노형초등학교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및 자산·공제 3000억원 조기 달성을 위한 회원사랑 대축제를 열 계획이다. 특히 노형새마을금고는 금고부녀회 봉사단을 조직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돈 이사장은 “앞으로도 회원 눈높이에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46-5080.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동행”



▶ 한라신협 연복로지점=23일 개점 10주년을 맞는 한라신협 연복로지점(지점장 조성길·사진)은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조합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성길 지점장은 “최고의 조합원 만족서비스와 실속 있는 금융상품을 통해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 722-1004.

“호텔·골프장 조경 및 용역서비스 제공”



▶ 특산에버그린(주)=24일 창립 37주년을 맞는 특산에버그린(주)(대표이사 김찬식·사진)은 전국의 특급호텔과 리조트 단지·골프장의 조경을 공사하는 한편 서비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고품질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

김찬식 대표이사는 “인재 파견과 생산 지원, 호텔 객실 청소, 경비·보안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모범기업으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711-8578. 이상민기자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원희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회복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회복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복

※ **이도동 칼호빌동측 대 192㎡ 주택80㎡ 3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50㎡ 5억
- 해안동 생관암(목장) 맹지28,842㎡ 6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하례5.16도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

- 애월수상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원
- 함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430㎡ 1.5억
- 판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억원

※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9억
- 우도하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바수 **때우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채워줍니다!!!**

에코방수?

에코방수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벽, 창틀, 바닥, 옥상 등의 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던 물을 밀어내고 **영구적으로 틈새를 채워주어 방수는 물론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입니다.

에코방수 | TEL. 064-784-8404, H·P. 010-9086-8965